

마가복음의 예수님(68)-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는가?(막 14:10-11)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본문에는 배신자라는 별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이름을 가진 가롯 유다가 등장한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아마도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1. 가롯 유다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돈께를 관리하던 가롯 유다는 점점 탐욕스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행세를 했다. 마리아가 삼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에도 유독 가롯 유다만 그것을 허비한다고 비난했다. 가롯 유다는 겉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인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교회 안에서도 혼자서 의롭다고 자기 말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분히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다.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변질시키고 말 것이다. 어느새 순수했던 영혼은 사라지고 탐욕스런 도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2. 가롯 유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마음, 곧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 물질로 유혹한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미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떤 틈도 내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가롯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요 6:70). 이것은 가롯 유다가 마귀라는 것은 아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란다.

3. 가롯 유다는 죄지를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10-11절)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제 가롯 유다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그는 선을 행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기회를 찾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자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가롯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롯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복음서를 보면, 회개할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다. 세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은 삼십에 팔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마가복음의 예수님(68) -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는가?(막 14:10-11)

1. 마음 열기 -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2. 경배와 찬양 - 찬 325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 모든 것 내려놓고 -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

내가 사랑 했던 - 모든 것 내려놓고 - 주 너만 사랑해 - 내가

- 주 사랑 거친 풍랑 에도 - 깊은 바다 처럼 - 나를 잠잠케 해 -

주 사랑 내 영 혼의 반석 - 그 사랑 위에 - 서 리 -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과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로운 척 했지만 그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내게는 없는지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3) 가롯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해 봅시다.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대심방"과 "상반기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